연중 제 33주일(2017년 11월 19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신부가 되었냐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늘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무지개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면,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 무지개를 잡고 싶고,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향해서 막 뛰어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여름 날 오후, 소낙비가 막 지나간 후에, 저는 너무도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그것을 만져보고 싶어서, 마냥 쫓아갔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그 무지개를 가까이서 보고, 만져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기는커녕, 그 무지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그 무지개를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무지개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무지개는 어느 순간 거기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가 전혀 낯선 곳에 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챘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사방을 헤매면서 길을 찾으려고 애썼고,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밤늦은 시간에 한 경찰관이 저를 발견해서,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어린 시절의 아주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지개를 마냥 쫓다가 길을 잃어버린 우스꽝스런 어처구니없는 경험이었지요.

우리들의 꿈이나 행복은 아마도 무지개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쫓아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잡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 잡았다고 생각해도 어느새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저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 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꿈꾸던 그 무지개는 이미 제 마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배웠고, 그분을 통해서 제 꿈이 실현될 거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합니다. 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찾아올 또 다른 하루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오직 참된 행복과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평화와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탈렌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동 지방에서 화폐의 단위로 쓰였지만, 지금의 의미는 ’재능’ 혹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세 명의 하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자신의 지위와 능력에 맞는 적당한 탈렌트를 지급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하인이 다섯 탈렌트를 받죠. 다섯 탈렌트는 당시 약 서른 가정이 오 년 동안 먹고 살만한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두 하인은 두 탈렌트와 한 탈렌트를 각각 받습니다. 한 탈렌트도 서른 가정이 일 년은 거뜬히 먹고 살 정도의 돈이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요.

두 명의 하인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인의 뜻대로 그 돈을 불리지만, 다른 한 명은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로마시대에는 주인이 재산을 불릴 목적으로 하인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자주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인이 맡겨준 돈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불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져온 하인은 악하고 게으르고 충실하지 못하다고 추궁을 받았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위치과 상황에 맞는 적당한 능력과 재능을 하느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에이, 난 아무런 재주가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는 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누구누구는 목소리가 좋아서 독서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아니고. 또 누구는 건강해서 성당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나는 별다른 재주가 없답니다”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남을 돕기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해서 남들 대접을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겸손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어떤 분들은 바른 말을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를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놀기를 잘해서 같이 놀면 즐겁고... 등등 잘 찾아보면, 나도 누군가가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이 혹은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진 재능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쓰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재능들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느님에게서 받은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쓰지 않는다면, 오늘 복음의 마지막 하인처럼,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느님께로 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잘 나누어 써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선물은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